

영남루의 전설

원한 씻은 붉은 깃발
영남루의 붉은 깃발
영남루 달밤에 이상사를 만나

김경진
이원명
배극소

雪幽冤夫人識朱旗
南樓舉朱旗訴冤
嶺南樓月夜逢李上舍說前生冤債

金敬鎭
李源命
裴克紹

원한 씻은 붉은 깃발[雪幽冤夫人識朱旗]785)

김경진⁷⁸⁶⁾

옛날 밀양 부사 가운데 중년에 부인을 잃고 단지 별실(別室)과 자부(子婦), 미혼의 딸을 둔 사람이 있었다. 딸자식은 난지 겨우 몇 달만에 어미를 잃고 유모에게 양육되어, 유모를 친어머니처럼 대하였다. 유모와 별도로 한 방에 거처하는데, 밀양 원님이 기울이는 사랑이 각별하였다. 하루는 유모와 함께 간 곳을 알 수 없어서 읍내의 시골까지 두루 찾아보았으나 그림자도 찾아볼 수 없었다. 밀양 원님은 놀라고 상심하여 광증이 발작하여 어지러이 소리치고 통곡을 하며 뛰어다녔다. 부득이하게 직책이 갈려 서울로 돌아가 이내 죽고 말았다.

그 후로 밀양 부사로 새로 임명되는 자는 도입하는 날이면 죽는데, 서너 차례 원님이 교체되도록 매양 이러하였다. 사람들이 모두 흉가로 보고 여러 가지로 이 자리를 피하려고 하였고, 그곳을 유배된 자에게 배정하더라도 원하는 자가 없었다. 조정에서는 크게 우려하여 장차 아무 날 조참(朝參)할 때에 문관(文官) 음관(蔭官)과 무관(武官) 등 조정 백관과 전직 직함을 가진 자를 대궐 안에 모이도록 하여 자원하는 자를 모집하였다.

그 때 한 무관이 금군(禁軍)으로 오래 근무하여 무겸(武兼) 경력으로 막승륙(陞六)하였다가 쫓겨나서 20여 년 동안 낙직(落職)한 자가 있었다. 나이 근 예순이나 가난이 뼈에 사무쳐 십 년에 옷 한 벌, 삼순구식(三旬九食)을 간신히 이어가는 자였다. 이런 까닭에 대문을 나서지 아니한 지도 벌써 오래된 지라, 이른바 사대부 재상 중에 안면이 있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밀양 부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는 그 처에게 말하기를,

“내가 자원하고자 하나 죽음이 두려워 생각을 못낸다”

고 하였다. 그 처는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무얼 두려워하시오. 도입 즉일로 죽더라도 태수라는 이름은 얻고, 요행히 죽지 않으면 천만 다행이 아니요. 주저하지 말고 받드

785) 이 글은 서벽외사해외수일본(栖碧外史海外蒐佚本) 《청구야담(靑邱野談)》 하권 333-340쪽에 수록된 <설유원부인식주기(雪幽冤夫人識朱旂)>를 대본으로 번역하였다.

786) 김경진(金敬鎭; 1815-1873): 자는 치일(稚一)이며, 안동인으로 선원(仙源) 김상용(金尙容)의 후손이다. 헌종 을미(1835)에 진사에 합격하고 음직으로 관직에 나가 금산군수로 있을 때인 헌종 계묘년(1843) 《청구야담(靑邱野談)》을 편찬하였으며, 철종 정사년에 문과에 급제하고 사간원 대사간, 성균관 대사성과 이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시 자원하소.”

하며 권하였다. 그 무관은 그 말을 옳게 여기고 조참에 참여하러 대궐에 나갔다가 반열에서 뛰어 나와 아뢰었다.

“소신(小臣)이 비록 재주 없으나 가고자 원하나이다.”

상감께서는 가상히 여겨서 정단(政單)을 열어 당일로 부임하라고 처리하였다.

그 무관은 집으로 돌아가 탄식을 하며 말하였다.

“그대 말대로 자원하였으나, 죽을 게 틀림없소. 내야 태수라는 명분을 얻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지마는, 집안 권속들이야 무슨 의미가 있겠소? 이제 영결하니 애통하지 않겠소?”

그 처는,

“전관(前官)의 죽음은 모두 당자의 명이지, 귀신이 어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소? 내 비록 여자지만 감당을 할 수 있소, 부임하는 길에 나와 함께 감이 어떻겠소?”

하고 청하였다. 이에 내자를 거느리고 출발하였다.

그 읍의 경계에 이르자, 이른바 관속(官屬)이란 자들이 차례차례 현신(現身)하는데, 그 기색을 보아 하니, 오일경조(五日京兆)로 여기고는 전연 삼가고 공경하는 마음이 없이 이마를 찡그리고 싫어하는 기색이 역력한데다가, 내행(內行)까지 내려오니 더욱이 골머리를 앓는 것 같았다. 관사에 도착하니 내외의 관사는 전연 수리하지 않아서 벽이 부서지고 구들이 무너져 도무지 어수선했다.

황혼 무렵이 되자 통인(通引)과 급창(及唱) 등이 고하지도 않고 물러나 버리니, 관사에는 사람 하나 없이 텅 비게 되었다. 부인은

“오늘 밤이 정녕 두렵소. 당신은 내아(內衙)에 들어가시오. 나는 남자 옷으로 갈아입고 관청에서 동정을 살펴보리이다.”

하고는, 촛불을 밝히고 혼자 앉아 있었다.

시각이 삼경 때가 되자, 홀연 어디선가 한 바탕 음산한 바람이 불더니 촛불이 깜박거리고 한기가 싸늘하게 엄습하였다. 잠시 뒤에 방문이 절로 열리

더니, 어떤 한 처녀가 온 몸에 피를 흘리고 머리를 헤치고 나체로 손에 붉은 깃발을 가지고 방안으로 번쩍 들어왔다. 그 부인은 당황하지도 놀라지도 않고 말하였다.

“너는 필시 원한이 있는데 풀 데가 없어 하소연하러 왔을 것이다. 내 너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줄 터이니 조용히 기다리고, 다시 나타나지 말아라.”

그 처녀는 절을 하고 갔다.

그 부인은 이에 내아로 들어와서 그 원님에게 말하였다.

“귀신은 이미 지나갔소. 이제 두려울 것 없으니 밖으로 나가서 주무시오”

그 원님은 비록 매우 두려웠으나 부인의 거동을 보고는 부득이하야 대담한 마음을 단단히 먹고 동헌으로 나가 누워 전전 반측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날이 장차 밝아지자 문 밖에 인적이 부스럭거리더니 말소리가 뽐뽐하였다. 문구멍을 뚫고 보니 곧 포교(捕校)와 서리(胥吏), 관노(官奴), 사령(使令), 통인, 방자(房子)의 무리들이었다. 혹은 짚자리를 가지고 혹은 거적을 안고 서로 모여 수군거리며 뜰 안에 가득한데, 서로 미루면서

“네가 먼저 청에 올라가 문을 열어라”

하면서도 얼굴을 서로 쳐다보며 감히 먼저 오르지 못하였다.

그 원님은 이에 의관을 바로잡고 창을 밀고 앉아서 말하였다.

“무슨 연고로 이리 뽐뽐한가? 들고 있는 것들은 무슨 물건인가?”

서리들은 크게 놀라 신인(神人)이 하강하였나 여기고는 마치 새나 짐승이 흩어지듯 창황하게 달아나 피하더니, 공손히 줄을 지어 넙죽 절을 하였다. 그 수령은 마침내 어제 번을 들지 않았던 몇 놈들의 죄를 다스리고, 수향수(首鄉首)와 수향리(首鄉吏)를 모두 바꿔버리고, 호령을 엄하게 밝히고 법을 엄정하게 다스리니, 관속들이 벌벌 떨며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였다.

그 날 밤에 내아로 들어가 부인에게 어젯밤 겪은 일을 물어보았다. 부인은 그 곡절을 역력히 말하면서,

“이는 필시 아무 원님 때의 처녀 혼백이 흥한의 손에 원통하게 죽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모르고서 도망갔다고 여긴 일일 것이요. 모름지기 몰래 염탐하여 성명이 주기[朱旗; 붉은 깃발]라는 자가 있으면 여러 말 말고 엄하

게 형벌하여 공초를 받으소.”

라고 하였다. 그 원님은 머리를 끄덕였다.

그 다음날, 아침 조회를 마치고서 우연히 장교안(將校案)을 열람하니, 본청의 집사로 주기(周基)라는 성명이 있었다. 이에 관청 일을 마친 뒤에 위의를 크게 펼치고 형틀을 갖추고 즉시 주기를 잡아들여 불문곡직하고 즉시 결박하여 큰칼을 씌우고 형틀 위에 올려놓으니, 온 읍의 상하 사람들이 그 연고를 모르고 깜짝 놀랐다. 그 원님은 이에 문초하였다.

“아무 사또 아기씨의 거처를 네가 반드시 알 터이니, 형벌을 가하기 전에 일일이 바로 공초하라”

이 원님은 도입하는 날 죽음을 면한 까닭에 사람들이 신명처럼 두려워하였다. 그러니 누가 감히 터럭 하나라도 얽매하거나 속이겠는가. 더구나 그놈은 자신이 중한 죄를 범하였기에, 사람들은 비록 모르지만 마음으로 항상 초조하였다. 잡아들이라는 명을 듣고서는 혼백이 빠지고 얼굴빛이 흙빛이 되어 감히 숨길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에 전후의 곡절을 일일이 털어놓았다.

대개, 아무 원님의 내행(內行)이 영남루 구경을 나왔을 때 그놈이 틈으로 엿보고서는 십분 욕심을 내었는데, 또 그 처녀에게는 유모하나가 있을 뿐인데, 그 유모와 별도로 한 방에 거처하면서 유모를 친어머니처럼 여겨 그 말이면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놈은 많은 재물을 써서 그 유모와 결탁하고 처녀를 모처로 유인해 오면 천금으로 후하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모처는 내아 후원의 대숲이었는데, 매우 궁벽한 곳으로 내아(內衙)와 멀리 떨어져 있고, 그 아래로 수십 경의 대숲이 있어서 이전부터 내행이 소풍 다니던 곳이었다.

그 유모는 재물에 현혹되어 마침내 처녀를 데리고 죽루(竹樓) 위에서 달구경을 나왔고, 그놈은 죽림 가운데 몸을 숨기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나와서 그녀의 허리를 껴안고 죽루 깊은 곳으로 뚫고 들어가서 강제로 욕보이려 하였다. 그 처녀가 곡을 하고 소리치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자, 그놈은 이런 지경에서는 죽기는 일반이다 생각하고 마침내 차고 있던 칼을 뽑아서 찔러 죽였다. 또 유모를 죽이지 않으면 일이 쉬 탄로날 것이라 생각하고는 그 유모도 찔러 죽이고, 양편 겨드랑이에 시신 하나씩 끼고는 담장을 넘어 나와 인적이 닿지 않는 관가의 주산(主山)에다 몰래 매장하여,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으나 아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다.

그 원님은 사유를 갖추어 감영(監營)에 보고하고 즉일로 때려 죽였다. 그 처녀의 사체를 파내어 보니 얼굴 색은 살아 있는 듯하고, 피 흔적이 낭자하

였다. 의복을 갈아 입히고 관을 갖추어 염을 하여 본가에 알려 메고 가서 그 선산 곁에 매장하였다. 그 죽르는 혈어버리고 대숲도 잘라 없앴다.

이로부터 본읍이 마침내 무사하게 되었고, 태수가 신명하다는 칭송이 온 세상에 떠돌아다녔다. 이로부터 부사는 여러 변방의 방어사(防禦使)와 병사(兵使), 수사(水使)를 거쳐 통제사(統制使)에 이르렀고, 도임(到任)하는 곳마다 선성(先聲)이 낭자하여 명령하지 않아도 시행되고 위엄을 차리지 않아도 엄하여 감히 숨기고 속이는 일이 없어서 가는 곳마다 잘 다스렸다고 한다.

昔有密陽倅 中年喪耦 只有別室及子婦未婚女子 而女子則生纔雖月而失母 鞠於乳母 待之如母. 與乳母別處一堂 而密陽倅鍾愛迥別. 一日并與乳母 不知去處. 遍訪邑內村里 影響遂絕. 密陽倅 心驚魂喪 狂症大發 胡叫亂嚷 號慟奔走. 不得已 遞職還京 仍以致死. 伊後 密陽新除者 輒於到任日身死. 歷三四等 每每如是. 人皆視以凶家 多般規避 雖卽其地定配人 無願者. 朝家大憂之 將以某日出朝參 令集文蔭武百官及前啣人於闕內 欲募自願人.

時有一武弁 以禁軍久勤 得武兼 纔陞六而遭故落職 爲二十餘年 年近六十 飢寒到骨 十年一衣 三旬九食 亦艱辛得之. 以是之故 不得出門 亦已久. 所謂名士宰相 無一知面者. 卽聞密陽倅之事 語其妻曰 “吾欲切自願 而畏死不敢生意云云.” 其妻曰 “死等耳. 何畏之有? 雖卽日身死 猶得太守之名. 僥倖不死 則豈非爲幸耶? 須勿趑趄 必爲自願.” 其武弁 然其言. 趁朝參赴闕 挺身出班奏曰 “小臣雖不才 願自往焉.” 王嘉之 開政單 付當日辭朝. 其弁歸家 憂嘆曰 “雖依君言自願 而知將必死. 吾則猶得太守之名 死固無恨 而至若家眷 有何意味乎. 從今永訣 豈不傷痛乎?” 妻曰 “前官之事 皆是當者之命. 鬼魅豈能死人乎? 我雖女子 可以擔當. 赴任之路 與我同行 如何?”

遂率內眷治發 到其邑界. 所謂官屬 次次現身 而觀其氣力 則認以五日京兆 全無敬謹之意 顯有蹙頞之色 內行之下來 尤視以頭痛. 入衙中 內外衙舍 全不修理 破壁壞突 滿目愁亂. 至黃昏時 通引及唱輩 皆不告而退. 衙中遂空無一人.

夫人曰 “今夜 政是可畏. 夫子須入處于內衙 吾當換着男子服 坐於衙舍 以觀動靜也.” 遂明燭獨坐 至三更時分 忽一陣陰風 自何而至 燭火明滅 寒氣逼骨. 少焉 房門自啓 有一處女 滿身流血 被髮裸體 手持朱旗 閃入房中. 其夫人 不惶不驚 語之曰 “汝必有冤莫伸 欲爲呼訴而來也. 吾當爲汝報讐 須靜以待之 更勿來現也.” 其妻女 拜謝而去. 其夫人 乃入內衙 謂其倅曰 “鬼魅俄已經過 今無可畏 須出寢外衙.”

其倅雖甚畏怖 見夫人舉動 不得已 牢着大膽 出臥衙軒 輒轉不寐. 迨天將明 門外人跡颯沓 語聲洶洶. 穴窓窺視 則乃校吏奴令通房輩也. 或持草席 或抱空石 相率偶語 盈滿庭中 互相推諉曰 “汝先上廳而開門也.” 面面相覷 莫肯先登.

其倅乃整衣冠 推窓而坐曰 “有何事故 而如是洶洶? 所抱持者何物耶?” 吏輩大驚 以爲神人下降 蒼黃趨避 便同鳥獸之散 恭行鴈鷺之拜. 其倅遂治昨日闕番

諸漢之罪 首鄉首吏 皆并除汰 號令嚴命 治法井井 官屬惴惴 不敢出聲。其夜入問夫人以昨夜所經之事 夫人將其事 歷歷言之曰“此必是某等內 處女之魂 必冤死於凶漢之手 而世皆不知 認以亡去者也。須暗地廉探 如有姓名朱旂者 不須多言 嚴刑取招也。”

其倅點頭。其翌朝仕後 偶閱將校案 則本廳執事 有周基性命。乃於坐衙後 大張威儀 多具刑杖 卽令拿入周基 不問皂白 卽爲結縛 鎖以大枷 加之於刑機之上。一邑上下 莫不驚怪 莫知其故。其倅乃問曰“某等內 阿只氏之去處 汝必知之。須不待加刑 一一直招。”此倅以到任日免死之故 畏之如神明 誰敢一毫欺蔽。況厥漢身有重犯 人雖莫知 而心常憧憧 卽聞拿入之命 神魂遁喪 面色如土 不敢生隱諱之計。乃將前後委折 一一詳達。

蓋某等內行 爲觀嶺南樓 出來之時 厥漢從隙窺見 已十分生慾。又聞其處女 只有一乳母 而與其別處一室 恃乳母如親母 有言必從。厥漢遂多用財物 厚結其媼 約以誘處女至于某處 則當以千金厚報。蓋某處則內衙後園竹樓 而地甚僻 與內衙絕遠 下有竹林十數頃 自前內行時時疎暢之所也。厥女利其財 遂携處女玩月於竹樓之上。厥漢隱身於竹林之中 不意跳出 直抱其腰 攬入竹林深處 欲爲強污。其處女且哭且號 終不聽言。厥漢以爲到此地頭 死則一般。遂拔佩刀 刺殺之。又思不殺乳媼 則事機易綻 又將其媼刺殺之。兩腋下 各挾一屍 踰垣而出 暗埋于官家主山 人跡不到處。今至幾年 而無人識得者。

其倅具由報營 卽日打殺之。其處女屍體 掘而視之 則面色如生 血痕狼藉。改其衣服棺材而斂之 報于本家 昇致其先山之傍而葬之。毀其竹樓 伐其竹林。自是以後 邑遂無事 而太守神明之稱 舉世喧傳。自此屢遷邊地 防禦兵水使至平統 而所到之處 先聲藉藉 不令而行 不威而嚴 不敢欺隱 到處善治云。

영남루의 붉은 깃발[南樓舉朱旗訴冤]787)

이원명⁷⁸⁸⁾

부사 남모(南某)는 문관이다. 중년에 계실이 딸 하나를 낳고서는 또 죽어, 그 딸을 유모에게 맡겨 길렀다. 남의 슬하에는 단지 이 딸 하나만 있었으므로 보고 또 돌아보고 애지중지 아끼며 사랑하였다. 딸이 제법 자라자 자태가 곱고 재치가 있어서 남은 마치 손안의 구슬처럼 아끼었다. 나이 열 다섯에 아직 비녀를 올리지 못했을 때 남이 밀양부사로 임명되어 권속을 데리고 갔는데, 딸과 유모가 따라 갔다. 간지 겨우 달포만에 딸과 유모가 어느 날 홀연 간 곳을 모른 채 사라져 버렸다. 원근의 곳곳을 두루 찾아보았으나 그림자도 찾을 수 없었다. 남은 통곡 실성하여 관직을 버리고 돌아갔고, 이로 인하여 병이 나 죽었다.

이로부터 밀양부사로 부임하는 자가 갑자기 죽는데, 서너 원님이 모두 이 꼴을 당하였다. 그러자 새로 임명되는 자는 모두 한사코 피하기만 하였다. 조정에서는 적당한 사람을 임명하기 어렵자, 김씨 성의 무관을 특별히 부사로 차출하여 임지에 가서 사태를 바로잡게 하였다. 김은 일찍이 방어사를 지내면서 명성과 치적이 있었고, 위인이 걸출하여 씩씩한 무사의 기풍이 있기 때문이었다.

김의 절친한 벗으로 이상사라는 자가 있었는데, 문자와 학식이 해박하고 담력 있고 기개가 웅장하여 능히 매사를 압도하였다. 김은 이를 초청하여 간청하였다.

“내 이제 남쪽으로 가면 그날이 곧 죽는 날일세. 그대가 같이 가서 진압을 해준다면 전화위복이 되지 않겠나?”

그러자 이는 쾌히 허락하고, 고삐를 나란히 하여 임지에 도착하자 김에게 말하였다.

“공은 동헌에서 주무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데리고 호위하는 게 좋겠소. 나는 영남루에서 동정을 살펴보리다.”

밤이 되자, 이는 손에 주역 한 권을 잡고, 향을 사르고 촛불을 밝히고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 삼경이 되자 만상이 적적하여 가는 달빛은 은은히 비

787) 이 이야기는 이원명이 편찬한 《동야취집(東野集)》 권5에 수록되어 있다.

788) 이원명(李源命; 1807-1887): 초명은 원경(源庚), 자는 치명(稹明), 호는 종산(鍾山), 시호는 문정(文靖), 용인인이다. 순조 29년 문과에 급제하여 여러 관직을 거쳐 이조판서로 치사하였다.

치고 음산한 바람은 소슬하게 불었다. 홀연 여자의 곡성 소리가 나는데 원망하듯 하소연하듯 멀리서 점차 가까워지더니 영남루 아래로 다가왔다. 이는 괴이하게 여겨, 단정히 앉아서 꿈적하지 않았다.

조금 있으니 방문이 절로 열리더니 싸늘한 바람이 일어나면서 촛불이 깜박거리고, 어떤 처녀가 온 몸에 피를 흘리며 머리를 풀고 눈물을 흘리며, 손에 조그만한 붉은 깃발 하나를 들고 번쩍 방 안으로 들어왔다. 이는 옷깃을 가다듬고 꿇어 앉아 물었다.

“귀신이나? 사람이나?”

“귀신이오”

“이승과 저승이 다르거늘 어찌하여 덤비느냐?”

“전생의 원통한 일이 있어 하소연하러 오니, 범인들은 기백이 허약하여 곧장 놀라 죽고 말았소. 이 원통한 일을 품고 씻을 기약이 없었는데, 이제 다행히 공을 만나게 되었소. 공은 참으로 대인군자시오.”

이상사는 원통한 일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그랬더니 여인이 대답하였다.

“나는 남부사의 여식이오. 유모에게 피임을 받아 달빛을 타고 영남루를 구경하였는데, 홀연 총각 한 놈이 다가 와서 뽀박하였소. 죽기로 항거하였더니 그놈이 마침내 나에게 칼을 찌르고, 내 시신을 강가 죽림 가운데 던졌소. 구천에서 천고토록 이 한을 어찌 다하겠소. 공이 만약 나를 위해 원통함을 풀어주신다면 마땅히 보답을 하리이다.”

이에 이가 말하였다.

“그놈은 누구냐?”

여인은 붉은 깃발을 들면서,

“이것으로 알 것이외다.”

하고는 말을 마치자 홀연 사라져 버렸다.

이는 아침에 일어나 그 사실을 본관 사또에게 알렸다. 본관 사또는 이에 관속들을 점검하였다. 이안을 살펴보니 성명을 주기(朱旗)라고 하는 자가 있었다. 즉시 잡아 들여 큰칼을 채우고 치적율(治賊律)을 적용하여 서안을 치며 꾸짖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흉악한 일을 저지른 경과를 본관이 이미 환히 알고 있으니, 감히 저항하겠느냐?”

주가놈은 얼굴 색이 흙빛이 되어 가만히 생각하되, 이 일은 아는 자가 없는데 홀연 이렇게 형벌을 가하는 것은 필시 신명의 지시가 있음이니 어떻게 숨길 수 있겠는가 하고는 일일이 실토하였다.

대개 남부사는 여식을 데리고 이곳에 오자, 유모와 함께 한 방에 거처하게 하였다. 여식은 유모를 부모처럼 믿고 일동 일정을 오로지 유모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내아의 동산에 정자가 있어서 여식은 유모와 함께 이곳에 올라가 구경하였다. 그 때 주기가 지인으로 우연히 동산 뒤를 지나다가 여자의 웃음소리를 듣고는 담장 사이로 엿보고 그 아름다운 자태를 보자, 문득 허욕이 생겼다. 그래서 후한 뇌물로 유모와 결탁하고 여식을 피어내게 하였다. 한 밤중에 영남루에 와서 달구경을 하다가 유모는 오줌눈다고 잠시 피한 사이에 이놈이 누각 아래 숨어 있다가 홀연 뛰어 나와 여식의 허리를 껴안고 억지로 더럽히려 하였다. 여인은 손과 발을 마구 휘저으며 큰 소리로 유모를 부르고, 곡을 하는 한편 소리를 치면서 끝까지 항거하였다. 이놈은 다른 사람들에게 발각될까 두려워서 마침내 칼을 뽑아 찌르고, 또 유모를 죽이지 않으면 일이 탄로나리라 생각하고는 유모도 함께 죽여, 즉시 두 시신을 끌어다가 죽림에 던지고 초석으로 덮어두었다. 주가놈은 곧 이안에 올라 본색을 숨기고 목숨을 연명한지 이미 여러 해였다.

부사는 즉시 사람을 시켜 죽림을 뒤져보게 하였더니, 과연 핏자국이 남자한 두 시신을 찾아내었는데, 처녀의 얼굴은 생시와 같고 몸도 썩지 않았다. 이에 염을 하고 관을 갖추어 본가로 실어 보내 장사를 치르게 하였다. 그런 다음 주기를 사형에 처하였다. 그 뒤 이상사는 과거에 급제하여 이름을 떨쳤다.

일찍이 관찰사 모가 순찰 차 밀양에 와서 영남루에서 자고, 장차 백일장을 열려고 하는데, 꿈에 한 처녀가 나타나서 말하였다.

“내일 시제는 ‘영남루 달밤에 이상사를 만나 전생의 원채를 울며 말하다 [嶺南樓月夜逢李上舍泣說前生冤債]’라고 하여 곁고, 포두(鋪頭)에 위 상(上)자를 세 번 쓴 시권을 장원으로 하소서”

라고 하였다. 관찰사는 잠을 깨어 이상하게 여기고, 그 말대로 시제를 내 걸었더니, 과연 위 상 자가 세 번 있는 시가 장원으로 선발되었다. 봉합을 떼어 보니, “배익소(裴益紹)”라고 되어 있었다. 그 사람을 불러 보았더니, 열 예닐곱 살의 소년이었다.

“이 시는 네가 지은 것이냐?”

하고 물었더니,

“아까 백일장에서 갑자기 혼곤하여 졸다 꿈을 꾸었는데, 한 여자가 이 시를 외어 주었습니다. 조름이 깨자 기억하여 시권에다 썼는데, 아래 다섯 구는 잊어버렸기에 서당 선생이 불러주는 대로 써서 글을 완성했습니다.”

라고 하였다. 시는 아래와 같다. [중략] 대개 이는 귀신이 지은 시이다. 구절구절 명작인데 아래의 다섯 구절은 조금 달라서 한 시를 두 쪽으로 나눈 듯한 아쉬움이 있다.

南府使某 文官也. 中年 繼室生一女 未幾 又叩盆. 鞠育其女于乳媼. 南膝下只此一女 顧復撫畜 殷斯勤斯. 女稍長 妍秀才慧 南愛之如掌珠. 年十五 姑未笄 南除密陽府 挈小眷而往. 女及乳媼從之. 甫月餘 女與媼 一日忽不知去處. 遍尋遠近 終無影響. 南號慟失性 棄官而歸 因以病歿. 自此 莅密陽者暴死 歷三四倅皆然. 新除者咸規避 朝家難其人. 特差金姓武弁爲府使 往矯之. 以金曾經防禦 有聲績 其爲人傑 赳赳有風也. 金之切友有李上舍 文識該洽 且膽氣雄壯 能壓魔事. 金邀李懇請曰 “吾今南下 卽命卒之秋. 與君偕往 得以鎮壓 則安知不轉禍爲福耶?”

李慨然許之. 聯鑣到官 謂金曰 “公可寢於衙軒 率衆衛護 俾邪不得犯. 僕當宿嶺南樓 以觀動靜.” 至夜 手執周易一卷 焚香明燭而坐. 約莫三更 萬籟俱寂 微月隱映 陰風蕭颯 忽聞女子哭聲 如冤如訴 自遠而近 漸至樓前. 李怪之 端坐不動. 少焉 房門自開 寒風來逼 燭影明滅 有一處子 滿身流血 被髮掩淚 手把一小朱旂 閃入房中. 李整衿危坐而問曰 “鬼乎人乎?” 女長吁而對曰 “鬼也” 曰 “幽明路殊 安得相糅?” 曰 “有前生冤恨 欲訴而來 則凡人氣魄類弱 輒驚怖而死. 抱茲幽菀 伸雪無期 今幸遇公 公誠大人君子.” 李問所願何事. 女曰 “吾是南府使女也. 被乳媼所欺 乘月玩嶺南樓 忽有總角一漢來逼 抵死牢拒. 彼竟剗刃於吾 因投吾屍於後岸竹林中. 九原千古 此恨曷旣? 公若爲我解冤 則當有冥報.” 李曰 “彼漢爲誰?” 女舉朱旂曰 “以此識之.” 言訖 倏然而逝.

李朝起 密告其狀于本官. 本官乃點閱官屬 至吏案 有朱基姓名者. 卽拿入 鎖以大枷 用治賊律 拍案大叱曰 “汝罪汝當知. 行凶節次 官已洞悉 敢抵賴乎?” 朱漢面色如土 默想此事人無知者 而忽此刑訊 必神明指示 何可隱諱 遂一一吐實.

蓋南守挈女來此 與乳媼共處一室. 女恃媼如天只 一動一靜 唯其指揮. 衙內有園亭 女偕媼登覽時 朱漢以知印偶過後園 聞女子笑語聲 從牆隙窺之 觀其妍遽生慾. 以厚賂結媼 誘女寅夜至嶺南樓玩景 媼託以放尿而少避 彼漢隱在樓下

忽地跳出 抱女腰 欲強污之。女亂撻手足 大聲呼嫗 且哭且號 終拒之。彼漢恐被人覺 遂拔劍以刺之。又思不殺嫗 則事機易綻 并戕其嫗 卽曳兩屍 投于竹林 掩以草席。朱漢旋陞吏案 藏頭假息 已有年矣。守卽令人搜竹林 果得兩屍 血痕淋漓 處女面如生 體不朽。因具棺斂 昇送本家以葬之。遂置朱于辟。後李上舍登科顯揚。

嘗有觀察使某 巡到密陽 宿嶺南樓 將設白日場 夢見一處女來曰“明日詩題以嶺南樓月夜逢李上舍泣雪前生冤債出揭 而鋪頭書三上箇字之券爲魁 可也。”觀察覺而異之 依其言懸題。果有三上字之詩 選爲壯元 坼封曰裴益紹。見其人乃十六七歲之童丱也。問“此詩汝所作乎”對曰“俄者場中 忽昏困如睡 夢有一女誦傳此詩 覺而記得書券 下五句則因遺亡 塾師呼寫成篇。”詩曰。[中略] 此卽鬼詩 句句名作 而下五句稍異 有一篇兩截之歎。

영남루 달밤에 이상사를 만나 전생의 원한을 말하다[嶺南樓月夜逢李上舍說前生冤債]⁷⁸⁹⁾

배극소⁷⁹⁰⁾

칼 흔적 푸른 강물에 갈아 없애고자
한을 품은 물이 해마다 꽃 같은 피를 쏟나니,
劍痕欲磨春江碧 恨水年年花血瀉

자옥한 숲의 연기는 성곽 남촌으로 비를 끌고
땃바람은 당 북쪽 정자의 등잔에 나부길 때,
황혼에 패물을 차고 잠시 머뭇거리니
인불과 반딧불 처량하게 오르내리는데,
누각 위에 달이 뜨는 가련한 밤에
강가에서 처음으로 이상사⁷⁹¹⁾를 만났노라.
원혼은 처량하게 구천의 원한을 품고
고달픈 말은 한밤중 햇대에 찬바람이 일었네.

林煙曳雨郭南村 竹風吹燈堂北榭⁷⁹²⁾
黃昏環佩乍延佇 走燐飛螢棲上下
樓頭月上可憐宵 江上初逢李上舍
冤魂棲帶九原羞⁷⁹³⁾ 苦語寒生五更架

아랑이 어찌 영남루를 알았으리오?
천리에 일찍이 아버님을 따라 왔소.
깊은 규중에서 늘 내칙편⁷⁹⁴⁾을 읽었으며

789) 아랑의 전설을 전하는 과시체(科詩體)의 이 시는 다양하게 전해지는 필사본 과시(科詩) 사본에 더러 나타나는데, 이본(異本)이 많다. 여기서는 이가원(李家源)의 《한국한문학사(韓國漢文學史)》에 실린 것을 대본(臺本)으로 하고, 《동야회집》 소재의 아랑 설화에 수록된 본시와, 역자 소장 of 서너 가지 전본(傳本)을 참조하여 교감하였다.

790) 이 시의 작자에 대하여는 몇 가지 이설이 있다. 앞에 든 이원명의 《동야회집》에는 “배익소(裴益紹)”의 작이라 하였고, 이가원(李家源)의 《한국한문학사》에는 “밀양선비 배극소(裴克紹)”의 작이라 하였으며, 역자 소장의 동시(東詩) 필사본 중에는 또 “홍화보(洪和輔)”의 작이라 기재된 책도 있다. 배극소의 문집인 《묵암집(默庵集)》에는 이 시가 실려 있지 않다.

791) 이상사(李上舍): 상사는 성균관(成均館) 유생(儒生)의 신분을 나타낸다.

792) 일본(一本)에는 堂을 城으로 바꾸어 전하기도 한다.

793) 일본에는 羞를 髒로 바꿨다.

794) 내칙편(內則篇): 《예기(禮記)》 <내칙>은 일상생활의 세세한 규범을 적은 책이다.

곧은 옥같이 꽃다운 자태 시집가기 전이었소.
 맑은 밤에 한 번 어머니의 훈계 어기고
 달구경이 유모의 속임인 줄 누가 알았겠소.
 부용당 위에서 난간에 기대고 있었더니
 서쪽 뜰에 꽃이 흔들리고 사람 그림자 나타났소.

阿⁷⁹⁵)娘豈識嶺南樓 千里曾隨大人駕
 深閨慣讀內則篇 貞玉芳姿年未嫁
 清宵一違母氏訓⁷⁹⁶) 玩月那知乳媼詐
 芙蓉堂上倚小檻 花拂西園人影乍⁷⁹⁷)

칼머리에 팔 끊어진 원혼 놀라 흩어지고
 대뿌리에 속절없이 원한의 피로 화하여 묻히니,
 가을 바람에도 부모 계신 곳 돌아가지 못하고
 붉은 원한 오로지 원님의 붓 빌리기만 생각했소.
 대숲의 성근 비는 시퍼런 피를 띠어
 내 원통함을 하소연해도 사람들이 절로 놀라,
 서쪽 교외로 몇 번이나 태수의 혼을 보냈으며
 동헌의 매화는 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았소.
 삼생에 서린 이승의 원통함을 호느끼며 호소하고
 꽃구경하던 당초의 마음은 옥 손가락을 깨문다오.

刀頭驚散斷臂魂 竹根空埋冤血化
 西風未返父母國 紫恨惟思丹筆借⁷⁹⁸)
 篁林疎雨帶血青⁷⁹⁹) 我欲啼冤人自怕
 西郊幾送太守魂 東閣頻見殘梅謝
 三生泣訴此地冤 翫花初心玉指咋⁸⁰⁰)

서안의 등불 가물거리며 마음 환히 비추고
 귀신의 말 조잘거리며 피맺힌 하소연을 하는 밤,
 상 머리의 수주⁸⁰¹)는 적적하게 소리 없고
 손 안의 단사⁸⁰²)로 주역 점치기 마치네.

795) 일본에는 아(阿)를 아(兒)로 하였다.

796) 일본에는 清을 寒으로 일본에는 閑으로 전한다.

797) 일본에는 園을 垣으로 하였다.

798) 일본에는 惟思를 猶伺로 하고 일본에는 猶願으로 하였다.

799) 일본에는 篁林靈雨, 일본에는 荒林烟竹으로 되어 있다.

800) 일본에는 이 구절이, “인간 세상 그 누가 저의 깊은 원한 변론하겠소?/오직 그대
 신령함으로 한번 씻어주기만 바라오.[人間誰卞妾根深 一雪惟願君靈藉]”로 되어 있다.

801) 수주(水呪): 아마도 물을 떠놓고 귀신을 쫓는 행위를 가리키는 듯.

書燈耿耿照心白 鬼語啾啾啼血夜
床頭水呪寂無聲 手裡丹砂占易罷

평두⁸⁰³)는 아직도 동헌 뜰⁸⁰⁴)에 있으니
그대 가진 서리 같은 칼날, 응당 용서하지 마시오.
은밀하고 긴 귀신의 하소연 원통한 말 마치자
달빛 희미한 뜰에 꽃 그림자 어른거리네.

平頭尙在雁鵞庭 子有霜鋌應不赦
幽脩鬼訴說冤罷 微月梅庭花影亞

802) 단사(丹砂): 진사(辰砂). 부적을 쓰는 데 사용하는 붉은 염료.

803) 평두(平頭): 관청의 잔 심부름을 하는 구실아치.

804) 동헌 뜰[雁鵞庭]: 관청에서 공무를 집행할 때 서리(胥吏)들이 좌우로 늘어서는 모습
을 기러기나 따오기가 줄지어 나는 데 비유하여 안목이라 한다.

嶺南樓題詠詩文

2002년 12월 일 인쇄

2002년 12월 일 발행

편역 정경주

교열 이운성

발행인 손기현

발행처 밀양문화원

인쇄처 광명인쇄사 ☎ (055) 351-1220

題字 一灘 河 漢 植

